

무주군,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카드수수료·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무주군이 무주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과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악화로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소비자 지급수단 중 카드 사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수수료를 지원함에 따라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의 경우 신용보증재단법(제)보충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대상에

서 제외되며,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겐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카드형 무주사랑 상품권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무주사랑 상품권 결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관내 농·축협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주유소, 경제사업장,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분사 직영매장, 대규모점포,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주점, 복권방, 사행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들 2개 사업의 경우 중복신청이

안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예산 소진 시까지)까지이며, 지원신청서와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과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은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장애인탁구단,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향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애인탁구단이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향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나주시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왼쪽부터 백영복, 이근우 선수.

국가대표 선발전은 개인단식(11점 5전 3선승제)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2022 향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국가대표는 선발전 결과의 등급별 순위를 기준으로 2022 향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탁구 종목 참가 인원이 확정된 후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거해 전문 체육위원회에서 심의

를 거친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된다.

2022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는 국제탁구연맹(ITTF)의 출전권 확보 명단에 따르며 국가대표 최종명단은 2022 향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선수와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참가선수를 포함한 명단으로 한다.

장수군장애인탁구단은 2022년 향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슬로베니아 라스코에서 개최되는 오픈대회와 7월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되는 오픈대회 등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없애고 싶어"

이투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할 것"

이투라 진안군의회 가선거구(진안읍·백운·성수·마령면) 입후보 예정자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555여 명이 사발을 하는 등 요즘 장애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 것 같다"며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장애인 복지정



책이 후퇴하는 상황이 아니라도 진안군의 장애인들만이라도 성실껏 돌보는데 헌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입후보 예정자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애인 돌봄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진안군 장애인 복지센터를 찾았고, 지적장애인 운동시간에 파크골프장에서 공을 놓아주기도 하는 등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말뚝무도 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 성지 무주 위상 높였다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 각종 전국대회서 상위 성적 거둬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 소속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 상위권에 링크되면서 전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군 명성을 드높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에서 오는 23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최효영(무주중) 단원이 체공도약격과·여중부 종합격과 및 여자 중등부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여자 중등부 우수 선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3일까지 강원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철원 전국 태권도 시범 경연대회에서 김건민(무주중) 단원이 체공도약격과 3위, 전이경(무주중) 단원이 체공도약격과 3위, 수지축회전격과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최효영(무주중) 단원이 체공도약격과 2위와 수지축회전격과 3위에 올랐으며, 김하연(안성중) 단원이 체공도약격과·수지축회전격과 각각 1위, 김강민(설천중) 단원이 체공 도약



격과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총괄 감독을 맡고 있는 무주군태권도협회 이도우 회장은 "그동안 갖고 있던 단원들의 실력이 이번 대회를 통해 나타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권도 성지 무주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단원들의 실력 향상과 꿈나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지역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2007년 12월 창단)은 반딧불축제 및 해외 시범 공연 등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군 홍보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둬 무주군의 태권도 위상과 명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지지합니다"

민선 6기 김호준 전 비서실장·정승모 전 대외협력팀장, 지지 선언

장수군 민선 6기 최용득 군수의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 군정을 보좌했던 김호준 전 비서실장과 정승모 전 대외협력팀장은 "민선 8기 장수군수 선거에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군민만을 위하고, 지방 소멸 위기의 장수군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준비된 후보는 양성빈 후보이며, 장수군 발전에 적임자라 판단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양성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양성빈 예비후보는 '고향사랑 기부제' 입법의 주역이며, 특히 민선 6기 공약이었던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의 취지를 공감하고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전임 군수들의 정책을 수용하고 계승발전 시켜 장수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후보이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가족화 사업은 최용득 군수 재임 시절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출향한 자녀들과 고향의 부모님의 소통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영상편지 발송, 가족 사랑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큰 만족도를 얻었지만 민선 7기 시절 폐지되었고 양성빈 예비후보의 주요 공



약사업으로 "가족화 사업 재추진"을 내걸어 고향사랑 기부제와 함께 출향민과 고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빈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7기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의 지지 선언은 과거의 화귀가 아닌 과거로부터 좋은 것은 계승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진화의 과정이다"라며 "군정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장수군 주민 K는 "최용득 전 군수의 비서실장과 대외협력팀장을 지냈던 두 사람의 지지 선언이 장수군수 후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지역농산물 가공창업 기술교육생 모집

진안군은 가공창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지역농산물 가공 또는 임가공(OEM)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5월 2일 이전에 진안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농촌지원과 농촌지원팀(063-430-8633)에 제출하거나 이메일(krs053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총 5회 과정으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농산물가공 최신트렌드, 창업절차 및 주의점, HACCP 교육, 임가공(OEM) 장단점 및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호서대 채희정 교수, (주)식품환경연구원 나혜진 대표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반려식물로 농업경쟁력 강화한다

진안군은 20일 중소농 중심의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1명 이 공동 재배 및 생산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만든 '희망더드림' 자율모임체다.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은 경영역량-소득증대-지역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언택트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더드림은 에메랄드 그린, 두릅 등 트레이를 활용한 컨테이너 재배를 통해 단순한 인테리어 작물을 넘어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일상의 재미를 주는 반려식물 판매로 고객층 확보에 나선 계획이다.

반려식물이란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일컫는 말로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과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식물 등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 개개인의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도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